

“음주운전 전력 4급 안 돼” 시민사회도 반발

“교원엔 엄격, 고위직엔 음주운전
범죄 전력자 기용 공직기강 추락”
교원단체도 ‘보은 인사’ 강력 반발
도교육청 인사 공정성·신뢰 도마

(6) 취임 석 달째로 접어든 천호성호의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2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하며,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본청 4급(서기관급)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전직 시의원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자격 검증과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인사 원칙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최근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전직 시의원 A씨가 전북교육청 개방형 직위인 4급 교육협력과장에 응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인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행정 고위직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며 특별선 인사를 경계했다.

이들은 “교육행정의 고위 직위일수록 일선 교육 현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인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원들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

으면서 본청 고위직에 범죄 전력자가 기용된다면 공직기강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사가 아니라 법과 원칙,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무직과 계약직 등 모든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중대 범죄 전력자를 주요 직위에 채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최근 전북교육청이 일반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고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조사 당사자를 채용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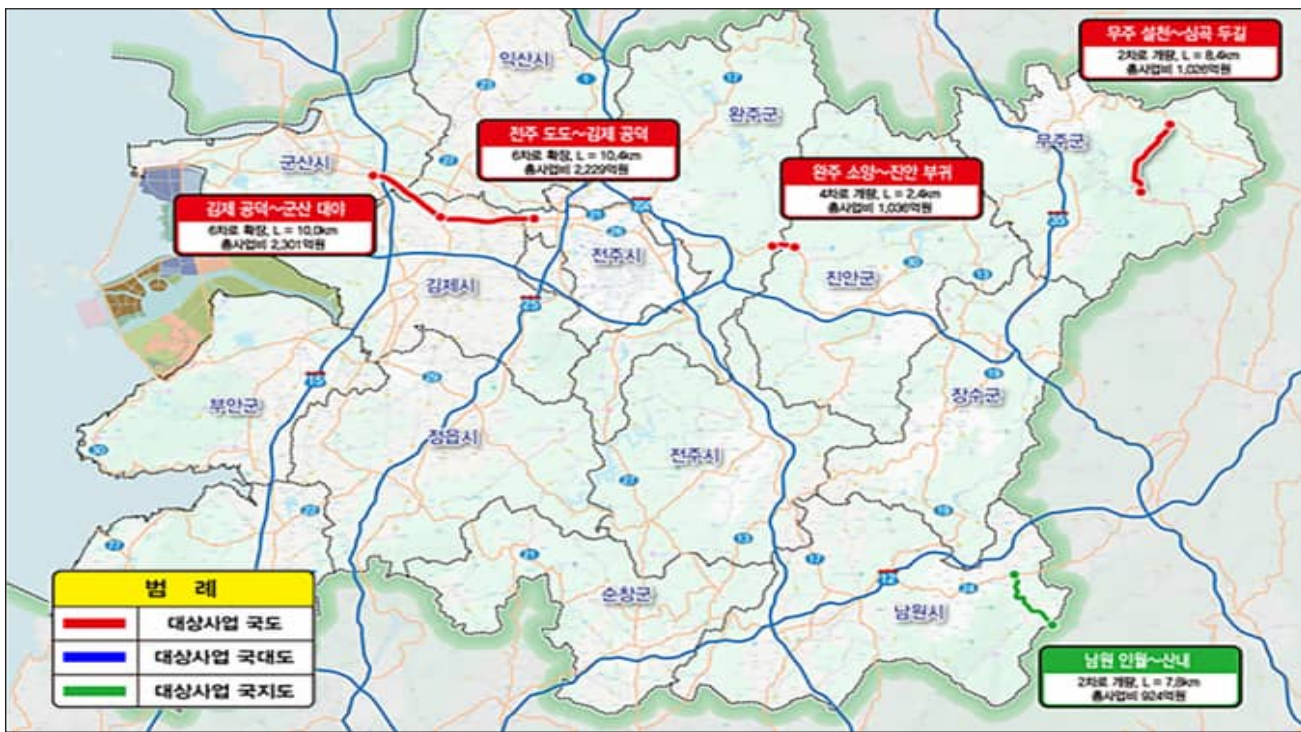
단체는 “공직 인사에서 최소한의 책임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마땅한 조치”라며 “과거 부리한 조사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을 교육청 공직에 다시 들이지 않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치시민연대는 “교육기관의 인사는 단순한 취업 문제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

라며 “전북교육청이 교육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인사 원칙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 교원단체들 역시 과거 초등학교 인근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수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던 인사가 본청 4급 고위직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교육 현장의 도덕적 기준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보은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 도로망 확충 ‘청신호’ 전북도는 26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북도의 전주~김제·군산 국도21호 확장 등 5개 사업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업위치도.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무주 항공·우주산업 ‘속도’...행정 지원 총력

전북도 전담 TF 구성 본격 가동
산지전용·산단 지정 원스톱 지원
2028년 상반기 지정·착공 목표

전북도가 26일 총사업비 3,488억 원 규모의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 지구’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할 전담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도는 ‘무주 투자선도지구 신속행정지원 TF’를 구성,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규모 예산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뒤따르는 사업인 만큼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협의 창구를 하나로 모아 선제적으

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TF팀은 사업 성패를 가를 산지전용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지정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도 건설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총괄운영반(도 지역개발팀) ▲사업추진반(무주군·현대로템㈜·총괄PM) ▲사업지원반(도 관계 부서 8개 팀) 등 3개 반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사업지원반에는 도시계획·기업유치·산단조성·산업보호·농지·자연복구지원·물류·유산지원팀이 참여한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지구 지정과 산단 착공 때까지로, 매월 정기 회의를 열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 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절차 일괄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산지전용 완화 방안과 부서·기관별 역할 분담, TF팀 운영 체계를 확정했다.

무주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도와 무주군, 현대로템㈜이 민간산단 투자 협약을 맺은 데 이어 6월 30일 정부 공모에 선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8월 10일 추진 상황 점검 회의와 12일 도지사·무주군수 간 협의를 거치면서 이번 전담팀 구성으로 이어졌다.

산지전용 문제는 법에서 평균경사 등 허가기준을 자치단체제로로 완화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편입 토지 매입과 사업시행 특수목

적법인(SPC) 구성 등 쟁점 사안도 조기에 조율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사천리 일원에 2034년까지 약 36만 평 규모의 민간산업단지와 연결도로(4.3km)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 가운데 454억 원(국비 100억·지방비 354억)은 기반 시설에, 3,034억 원은 현대로템㈜의 민간산단 조성에 투입된다.

도는 올 하반기 각종 영향 평가와 지구지정 용역에 착수해 2027년 국토교통부에 일괄 지정을 신청하고, 2028년 상반기 지구 지정·고시와 산단 착공을 이룬다는 목표다.

/장정철 기자 /무주=최희호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38.9% ‘추락’

2주만 4%p 급락 취임 후 첫 30%대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26일 여론조사사업체인 [조원씨앤아이]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보다 4%포인트 급락한 38.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선으로 추락한 것은 취임 이후 첫 번째이다.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상승한 57.9%였으며, ‘모름’은 3.2%였다.

연령별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18~29세(긍정 30.1%, 부정 62.9%)와 30대(긍정 33.1%, 부정 65.8%)는 부정평가가 60%대로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이었던 40대(긍정 43.3%, 부정 56.3%), 50대(긍정

40.9%, 부정 56.3%)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특히 2주 전까지만 해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던 50대에서 긍정평가가 12.4%포인트 낮아지면서 50대마저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또 60대(긍정 44.2%, 부정 53.3%), 70세 이상(긍정 39.6%, 부정 54.7%) 모두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전남·광주·전북, 긍정 65.3%, 부정 31.3%)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질렀다.

‘민심 바로미터’인 대전·세종·충청의 평가는 부정 64.5%로 긍정 33.5%보다 2배 가깝게 높았다. 2주새 부정평가가 무려 12.8% 급증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을 활용한 ARS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윤=김영목기자

도교육청 초등 순환전보 유예 현장선 “오락가락 행정” 혼란

시행 7개월 앞두고 2년 연기
새 기준 맞춘 교원들 혼란 가중
도시·농어촌 교원 간 갈등 우려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던 ‘초등 순환전보제’ 도입을 2029년으로 2년 전격 유예했다.

수년간 예고돼 시행을 불과 7개월 앞둔 교원 인사 기준이 교육감 교체와 함께 바뀌면서, 새 제도에 맞춰 근무지와 경력을 관리해 온 일선 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이던 순환전보 도입 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2년 미루는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7일 공고했다.

‘초등 순환전보제’는 전주 등 선호도 심 지역에 교원들이 장기 근무하며 발생하는 시·군 간 교육 격차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인수위 당시 제기된 보완 필요성과 현장의 우려를 수

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5%가 10년 순환전보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등, 농어촌 교원들을 중심으로 가산점 중복 혜택과 강제 전보에 따른 여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제도를 믿고 원거리 출퇴근을 감수해 온 교원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의 한 교사는 “이제라도 유예돼 다행이란 말에는 화만 난다”며 “전주 살면서 타지역 왕복 2시간씩 운전해 다닌 사람 입장에서 어이가 없고 제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전북교육청이 하는 일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천호성 교육감은 도시와 농어촌 교원 간 갈등과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확보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전북교육청이 현장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흔들린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등 특별자치 4곳 ‘5극3특’ 한목소리

전북·강원·제주·세종
민선9기 첫 정기회의 개최
권한이양·재정지원 등 공동성명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전북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5극 3특’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특별자치시도가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특별자치에 필요한 권한과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석했다.

4개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5극 3특’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추진과 특별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5극과 3특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성장축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

특히 4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특별자치시·도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권한이양·재정지원·규제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상호 세종시장, 위성곤 제주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이원택 전북지사

▲혁신·특례 확대 등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2026년 내 조속한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번 정기회의와 공동성명을 계기로 강원·제주·세종과의 정책 공조를

<사진=전북도>

다욱 강화할 방침이다. 권한이양과 규제 혁신, 특례 확대 등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하는 등 특별자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이진숙 ‘여자 전두환’…제명해야”

제명 어려우면 1년 자격정지추진
이의원, 김대표 모욕 혐의 고소



김민석 대표



이진숙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9 폄훼 토론회 주최’와 관련,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거둬 제명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여자 히틀러”라고 비난하자 모욕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이진숙 의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공통적인 지적이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듣다 보니 이(진숙) 의원이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구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여자 전두환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판결이 났다”며 “전두환은 내란범으로 판결이 났기에 ‘여자 전두환’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정

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의원 제명)윤리위원회에 절차를 속도감 있게 국민들께 오라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만약 현행 국회법상 (제명)이 어려움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기한 본회의를 통해 과반 의결로 1년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아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서미화 최고위원도 “5·18 폄훼에는 침묵하면서 자신의 명예에는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고,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이진숙 감사기에 본격 돌입한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5.18 폄훼 토론회 주최와 관련 김민석 대표가 ‘여자 화운동으로 판결이 났다’며 “전두환은 내란범으로 판결이 났기에 ‘여자 전두환’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정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도로망 확충 ‘청신호’…국도·국지도 5곳 예타 통과

총 7,516억 규모 39km 확장·개량
전주~김제~군산 6차로 확장 추진
‘20년 숙원사업’ 소양~부기 포함

전북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내 5개 사업, 총사업비 7,516억 원 규모의 사업이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 도로~김제 공덕(국도21호) △김제 공덕~군산 대야(국도21호) △남원 인월~산내(국지도60호) △완주 소양~진안 부기(국도26호)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37호) 등이다. 국도 4개, 국지도 1개로 총연장 39km, 사업비는 7,516억 원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선도로와 지역 주요 도로의 신설·확장·

개량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완주 소양~진안 부기 국도26호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1,036억 원을 투입해 2.4km 구간을 4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년 이상 지역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숙원사업이다. 협소한 도로 여건과 교통 불편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전주 도로~김제 공덕과 김제 공덕~군산 대야 국도21호 확장사업도 함께 통과했다. 두 사업은 총사업비 4,530억 원을 투입해 전주 도로에서 군산 대야까지 총 20.4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 구간은 도내 국도 구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로 병목과 정체 발생해 도로 확장이 시급한 곳이다. 이번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6차로 확장이 추진되면 교통정체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주~김제~군산~

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물류축으로, 현대자동차 투자와 새만금 개발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할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도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주요 산업거점 간 접근성과 물류 이동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 인월~산내 국지도60호선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924억 원을 투입해 7.8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지리산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도로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및 교통안전성을 높이고,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간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 설천 심곡~두길 국도37호선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026억 원을 투입해 8.4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무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도로 안전성을 높이고, 무주 주요 관광지와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일괄예타를 통과한 5개 사업의 후속 절차와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는 한편, 총 3,310억 원 규모의 비예타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군, 전북도의회, 전북연구원 등과 협력해 교통 여건과 주민 편의, 산업·물류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통과 사업의 후속 절차와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비예타 사업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업체 특별 위생점검

전북도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식육가공업 14개소, 유가공업 4개소, 알가공업 2개소 등 도 관리업체 20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 30개소, 축산물판매업 210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0개소 등 시군 관리업체 280개소를 포함한 총 300개소다.

특히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후속 절차와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비예타 사업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사원 등 총 80명이 참여한다. 시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사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민간 감시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적정 처리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축산물 병장·냉동 보관 및 운반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폐기하는 등 후속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산재 의료 거점 건립 ‘탄력’

익산 200병상 산재전문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전북권 산업재해 근로자의 전문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를 지원할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도는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지역에 산재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재활할 의료기관을 확충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치료부터 재활과 사회·직장 복귀까지 이어지

는 종합적인 산재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은 익산시 일원에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73억원이다. 현재 전국에 12개 산재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에는 산재전문병원 없이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전

문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병원이 건립되면 전북과 충남 서남부권을 아우르는 산재 전문 의료거점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초기 응급처치와 수술부터 집중재활, 사업장 적응훈련, 직장 복귀 지원까지 치료와 회복 전 과정을 연계한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심사·검진을 통한 산재 판정 지원과 환자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을 운영해 산재근로자의 조기 회복과 원활한 사회·직장 복귀를 지원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일반 진료 기능도 수행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재환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의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사고 발생부터 치료·재활·직장 복귀까지 지역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으로써 전북권 산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예타 대상 선정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익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병원의 세부 기능과 운영 계획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냉방설비 효율은 설정온도, 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부 온도와**의 차이는 **5~6℃**, **습도는 40~70%**를 유지할 때 가장 쾌적하답니다.

적정한 실내 냉방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쾌적성에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도록 해요.



‘천사도시’ 전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 시상

5명 자원봉사자·1개 단체 전주시장 표창 수여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6일 ‘2026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개최해 이웃사랑 실천 자원봉사자 일반인 4명과 청소년 1명 등 총 5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25만여명 전주시 자원봉사자 중 분기별 자원봉사 △활동 횟수 △봉사 시간 △참여 연수 등의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또 정성평가 부분의 경우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에 기여도가 높은 봉사자 중 특별한 분야에서 우수함을 보인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에 선정됐다
◀사진=전주시>

이날 일반인 부문은 △전주덕진경찰서 범죄예방 야간 순찰 및 대한적십자사 음식·의류 나눔 등 생활 지원에 앞장선 채봉덕 씨(72세, 여) △전주온빛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

동 지원에 힘쓴 온 박치숙 씨(61세, 여) △전북동 제2초소 자율방범활동과 전주시 어진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관람객 응대 봉사를 실천 한 박정수 씨(73세, 남)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

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파랑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 말벗 서비스와 활동보조 봉사를 이어온 이효변(16세, 남)이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정성평가 외국인 부문에서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종합민원실 민원 안내 봉사로 따뜻한 나눔을 보인 사요광(46세, 여)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농촌 마을 일손 돕기와 혁신도시 일대 플로깅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힘쓴은 한국농수산대학교 봉사단체인 ‘심봉사’(대표 최진강)가 단체 부문 수상자로 결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봉사자들을 적극 발굴해 자원봉사자가 존중받는 따뜻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잇따라

26일 4개 단체 총 1100만원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상인 향한 지역사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26일 전주부시장실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4개 단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500만원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 300만원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200만원 △(사)한국새농민 전주완주시군회 100만원 등 회원 조성 성금 총 11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

다. 전달된 성금은 전주복지재단을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어동 상인 17명 시설 복구와 조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균등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화재 피해 복구 지원에서도 지난 1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성금 700만원 기탁, 21일 전주시 공직자 직렬별 전목 모임과 전주지역 건축사회 총 1300만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온정의 손길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실비 지원

내달 1일 시 누리집 접수 시작 1년간 300만원 분기별 지급

전주시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온라인 접수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세사가 피해에 따른 주택임차인 주거안정과 생활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사가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매월 최대 25만원, 최대 1년간 300만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원된다.

또 대출이자·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는 긴급생계비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지급한다.

단,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긴급생계비 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회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시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피해 세대에는 최대 160만원 이사비도 실비로 지원된다.

이사회는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가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이다.

반면, 지원받은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주거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3분기 주거비 지원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 제출 서류 등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초고령사회 주거대안 ‘은퇴자마을’ 포럼

(재)전주시정연구원 (사)한국주택학회 공동 개최

(재)전주시정연구원·(사)한국주택학회는 26일 초고령사회 새로운 주거대안 ‘은퇴자마을’ 맞춤형모델 모색자리를 마련했다.

‘은퇴자마을’ 맞춤형모델은 ‘초고령사회, 지역맞춤형 은퇴자마을 모델을 묻다’ 주제 공동 포럼으로서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오후 2시 개최됐다.

포럼은 지난 3월 공포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방대도시연구원과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위한 지역맞춤형 은퇴자마을 모델 도입’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포럼에서 정영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새로운 주거모델, 은퇴자마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주거 수요 변화와 은퇴자마을 필요성, 은퇴자마을에 대한 선호도와 유형, 지불의향 금액 등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은퇴자마을 구상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대학 연계형 은퇴자 공동체(UBRC) 모델과 과제’ 주제 발표에 나선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은 대학이 보유한 의료·건강,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모델 중심으로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서비스와 조성 위치에 따른 거주 의향, 대학의 참여 수준 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UBRC 모델 국내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 발표 이후 진창하 (사)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송해근 전주대학교 평생학습지원센터장, 유선중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혜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남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이 자리에서 은퇴자마을 주거정책적 의미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 ‘대학과의 협력 모델’,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주시정연구원은 포럼에 앞서 (사)한국주택학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청렴 공감의 날’ 개최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전염질환센터 앞 로비에서 임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가 26일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의 반부패·청렴 참여를 높여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 중심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직원이 선정한 청렴 혁신 슬로건 ‘진료에 신뢰를, 청렴에 진심’을 주제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직원·내원객 참여 ‘청렴 칭찬 스티커 투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김은지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대형화재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전주덕진소방서가 ‘2026년 3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을 26일 실시했다.

훈련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합건축물 대형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통제단 대응·수습·복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팔복동 소재 ‘더 메이 호텔’에서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화재 발생에 따

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단계별 대응 △현장지휘소 설치 및 통제단원 임무 숙달 △특수차량(굴절차 등)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진화 △재난 현장 수습 및 복구 체계 점검 등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관내 대형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이어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대학새마을동아리 세대공감 나눔 실천



전주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세대 간 소통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주대학새마을동아리는 지난 25일 지역사회 어르신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행복을 잇다! 세대공감 힐링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날 진행된 1차 세대공감은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초록우산센터에 마련됐다.

전주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는 다양한 봉사과 나눔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공감과 공동체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정혜민 기자

“전북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 편차 커”

정보제공 현황 파악 진료비 게시율 98% 고양이 입원비 병원별 최대 10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 정보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동물병원 진료비 실태와 소비자 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전북지역 동물병원 농림축산식품부 공시가격과 실제 현장가격을 비교한 결과, 초진 진찰료처럼 거의 차이가 없는 항목도 있었지만 혈액화학검사비, 종합백신, 입원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초진 진찰료(10kg)&는 공시가격 평균 11,400원, 실제가격 평균 11,458원으로 58원(0.5%) 높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종합백신은 공시가격 22,943원

에서 실제가격 26,092원으로 3,149원(13.7%) 높았으며, 혈액화학검사비는 공시가격 74,244원에서 실제가격 89,792원으로 15,548원(20.9%) 높아 주요 비교 항목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입원비 개(10kg)는 공시가격 65,491원보다 실제가격이 58,129원으로 7,362원(11.2%) 낮았고, 심장사상충 예방비(5kg)도 공시가격 11,804원보다 실제가격이 10,449원으로 1,355원(11.5%) 낮았다.

조사 공시자료는 지자체별 평균가격을 시·군 동일 가중으로 단순 평균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 대상 병원별 가격을 평균해 산출했다.

초진 진찰료(10kg)는 현장조사 평균 11,458원, 공개시스템 11,40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재진 진찰료도 각각 9,089원과 8,855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초·재진 진찰료 최고가는 현장조사에서 모두 50,000원으로 나타나 공개시스템의 37,000원, 30,000원보다 높았다. 진찰 상담료는 현장조사 평균 7,572원, 공개시스템 8,924원이었으며,



상담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병원도 확인됐다.

개(10kg) 입원비는 현장조사 평균 58,129원, 공개시스템 65,491원으로 공개시스템이 7,362원 높았으며, 최고가도 각각 100,000원과 150,000원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고양이 입원비는 현장조사 평균 78,000원으로 공개시스템 62,930원보다 15,070원 높았다. 특히 고양이 입원비는 최저 20,000원에서 최고 200,000원까지 나타나는 등 병원별 가

격 편차가 컸다.

예방접종비 6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현장조사 28,328원, 공개시스템 25,604원으로 현장조사가 2,724원 높았다.

종합백신(개)은 26,092원과 22,943원, 광견병백신은 24,188원과 20,609원, 인플루엔자백신은 37,698원과 33,589원으로 조사되는 등 모든 비교 항목에서 현장조사 평균가격이 공개시스템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2세대 육계 스마트팜’ 개발

실증농가 도입 생산 지수 약 5%↑ 암모니아 배출량 20%↓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축사에서 수집한 사료 섭취량, 온도·습도 데이터를 사양·환경 관리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세대 육계 스마트팜’을 개발해 현장에서 실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전남대학교, ㈜이모션과 공동연구로 현장 데이터 기반의 환경·사양관리 판단을 지원하는 2세대 육계 스마트팜을 개발했다.

2세대 육계 스마트팜은 △축사 환경 측정과 바닥 관리를 지원하는 주행형 환경관리장치 △환기 필요량을 예측해 환기를 제어하는 능동형 환기제어 기술 △환경·사양 정보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주행형 환경관리장치는 축사 안을 이동하면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 가스 농도와 온도·습도를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축사 내 위치별 온·습도와 가스 농도 차이를 색상으로 시각화한 환경 분포도로 제공된다.

농가 현장 실증 결과, 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사육동과 비교해 암모니아 배

출량이 약 20% 감소했다. 능동형 환기제어 기술은 축사 내부 열 환경 변화를 예측해 환기를 제어하는 사전 대응 방식이다. 기술 적용 결과 기존 온도 감지기(센서) 기반 환기 방식과 비교해 고온기 낮 시간대 축사 내부 온도가 최대 2도 낮아졌으며 터널 팬 가동량은 48.3%, 전력 사용량은 35.2% 줄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각 장비와 감지기(센서)로 수집한 온도·습도와 가스 농도 등 환경정보, 급이량·급수량·체중 등 사육 정보, 예측 체중과 사료효율 등 데이터 기반 분석 정보를 연계, 정리해 한 화면에서 제공한다.

2세대 스마트팜 적용 전후 실증 농가

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생산지수는 도입 전 대비 4.8% 향상됐고, 닭의 체중 1kg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량, 즉 사료요구율은 3.4% 개선됐다. 출하까지 정상적으로 자란 닭의 비율도 96.8%에서 98.8%로 높아졌다.

연구진이 사료요구율 차이와 육성을 향상 효과를 경제성으로 환산한 결과, 3만 수 규모 육계사 1개 동 기준 연간 약 1450만원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해외 적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법률상담센터’ 실시

농업인 일상생활 법률문제 해결… 새로운 농협 구현

26일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과 정읍원에농협은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일상생활 법률문제 해결 위해 마련됐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1년 시작해 올해 16년째 맞이했다.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

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김성수 국장은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로서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기원>

전북농업기술원, 벼 재종단계별 합동진단

원원종·원종 54톤 생산 추진 고순도 우량종자 안정 공급 만전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지난 26일 종자사업소 벼 종자 생산포장에서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벼 재종단계별 재배포장 합동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진단은 벼 종자의 품종 순도를 높이고 병해충 발생 여부와 생육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고품질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단 대상은‘조담’을 포함한 원원종 9품종(72a)과‘신동진1’을 포함한 원종 8품종(1,180a) 등 총 17품종, 12.5ha의 벼 생산포장이다.

참석자들은 재종단계별로 포장을 순회하며, 품종 특성 유지 여부, 이품종 혼입 및 제거 상태, 병해충 발생 상황, 생육 진행 상태, 재배관리 실태 등을 종합 점검했다.

합동진단 결과, 재종포의 생육과 품종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원은 수확기까지 이형주 제거와 병해충 관리를 강화해 고순도 종

자 생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종자사업소는 지난 5월 11일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올해 ‘신동진1’, 등 벼 원원종·원종 54톤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된 종자는 품질검사 등을 거쳐 다음 재종단계의 종자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전북농업기술원은‘신동진1’을 포함한 품종 다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우량종자의 안정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시군과 합동 예찰 및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벼 생산에 대응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박현수 박사는 “재종단계별 포장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확기까지 이형주 제거와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농업기술원 서경원 종자사업소장은 “관계기관 합동진단을 통해 재종포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확부터 정선·발아검사 등 후속 단계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농업인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고순도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정보교류시스템’ 서비스 운영

도내 디지털 기업 DB 검색 및 우수기업 콘텐츠 개방

지역 기업들의 큰 고충 ‘수요·공급 mismatch’ 문제 해결 위한 전북디지털융합센터 ‘디지털전환 정보교류시스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시스템은 중앙부처 디지털·AI 정책 및 사업 정보 통합 제공 기능과 함께 지역 기업 간 연결

‘기업정보 서비스’를 핵심에 두고 있다. ‘기업정보’ 메뉴는 △ICT/SW 기업 DB 검색 △우수기업 홍보 콘텐츠 △기업매칭 안내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ICT/SW 기업 DB 검색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ICT·SW 기업 소재지와 업종, 취급 품목, 보유 기술 분야를 목록으로 확인하고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다.

기업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주요 제품과 서비스 정보와 협력 가능성을 사전에 기능할 수 있어 별도 이용료나 복잡

한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해 기업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연구기관도 지역 산업 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우수기업 홍보 콘텐츠’는 도내 유망기업 기술력과 성과 소개 코너로서 규모가 작아 그동안 외부에 알려질 기회가 적었던 기업들이 자사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기업매칭 안내를 통해 센터가 직접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는 1:1 매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매칭 안내는 기업 상세 페이지에

서 곧바로 매칭을 신청할 수 있어 찾아보는 단계에서 실제 연결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 구조다.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은 “도내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지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며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검색 편의성을 개선해, 지역 기업이 필요한 파트너를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청소년 불법도박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 위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캠페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익 캠페인이다.

김대근 사장 이번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는 앞서 한중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김대근 사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담은 인증 사진을 공개하며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사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을 넘어 청소년의 미래와 일상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김제신협사회공헌활동 ‘온누리에사랑을캠페인’ 전개

김제신협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는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을 통해 선정된 이웃에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신협 임직원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추천받아 선정된 가정에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 자선 캠페인이다. 김제신협 백강석 이사장은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김제지역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제신협은 행복한집 프로젝트와 더불어 매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취약계층 대상 난방용품 나누기, 사랑의 집수리, 쌀 나누기, 장수사진 등 다양한 나눔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군산신영시장 현장점검

기습적 폭우 등 기상 악화 재해 예방… 풍수해 집중 대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은 26일 군산신영시장에 방문해 기습적 폭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재해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전북중기청은 시장 내 배수시설 관리 상태, 강풍 대비 시설물 고정 상태 등 풍수해 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여름철 사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15개 전통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최근 군산대야시장, 무주반딧불시장과 군산신영시장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최근 경남



<사진=전북중기청>

지역의 수해 사례에서 보듯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한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집중점검에 이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정부 차원의 밀착 지원을 통해 여름철 재해로부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군산시·구세군-LG전자 ‘안심을 잇는 약속’ 체결

군산시는 26일 초원사진관에서 구세군, LG전자와 함께 ‘8월의 크리스마스, 안심을 잇는 약속’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준 군산시장, 김병용 구세군 사령관, 윤대식 LG전자 전무 등이 참석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주거·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민관 협력 사업은 총 3억 원 규모이다. 세부적으로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풍동 중앙경로당을 ‘재난 마을 회복거점’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중앙동 등 통합돌봄 대상 20가구에 주거환경 개선과 가전제품 지원을 위한 ‘안심이음집’ 사업에 2억 원이 쓰인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중앙동 안심이음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개선된 주거공간을 살폈다. 이어 신풍동 중앙경로당으로 이동해 ‘재난 마을 회복거점’ 개소식과 현관 제막식을 진행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안심이음집 또한 취약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점검

익산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다.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을 비롯해 시의원과 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시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방영 시민참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시민참여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추진과제별 올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과 행정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이어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를 살피고, 실행 가능한 제안은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질·상습 체납 뿌리 뽑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산시는 26일 고질·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해 온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고지서 발송,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이동형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비롯해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를 총동원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 빌라 밀집 지역, 이번 도로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색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했으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석기 시민납세과장은 “이번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전한 납세 의식이 확산돼 성실한 납부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창업기업 성장 기반 마련

단계별 지원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 창업정책 방향 논의

익산시가 창업기업의 도전부터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창업지원기관과 투자사, 대학, 산업계 등 창업 분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스타트업 상생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그동안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창업지원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창업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지원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투자유치 생태계 조성 △창업 공간·기반시설 확충 로드맵 △지역 대학·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협의체를 정기적인 소통 창구로 운영해 창업 현장의 수요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스타트업이 모이는 도시, 익산’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창업지원 체계 강화는 익산시가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선정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익산을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창업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스타트업이 모이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지황, 약용치유산업 육성 본격화

생산·가공·관광까지 복합산업지구 조성

정읍시가 지난 4년간 정읍지황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다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선정 성과를 거두고 약용치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25일 ‘2026년 제2차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읍지황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과 농업계, 산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난 4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연계할 후속사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업단은 정읍지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재배농가와 관계 인력의 역량 강화, 정읍지황 홍보·판촉, 쌍화차거리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특히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쌍화차와 농촌체험관광을 연계해 지황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힘썼다. 다양한 홍보와 상품 개발을 통해 정읍지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대도 주력했다.

그 결과 2025년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로 지정됐으며, ‘약용치유 융복합지구’가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됐다. 정읍지황이 지난 농업·문화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사업’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황 농업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다.

전통농업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지역 상생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는 약용

작물의 생산부터 가공·치유·관광까지 연결하는 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지황 등 정읍산 약용작물의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치유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쌍화차거리와 치유농업 거점, 내장산 관광자원을 연계한 산업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호연 사업단장은 “지난 4년간 일궈낸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약용치유 융복합지구 조성과 농업유산 보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읍지황이 지역 농업의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농가와 기업,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치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중진공, 내일체육공제 지원 ‘맞손’

360만 원 적립 만기 시 1,296만 원 수령

군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26일 중진공과 ‘군산시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체육공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재준 군산시장과 조한교 중진공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중진공 인력성장이사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8만 원, 중진공이 8만 원, 군산시가 10만 원을 더해 함께 쌓아주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청년은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의 3.6배인 1,296만 원(원금 기준)을 받는다. 군산시는 3년간 총 1억 3,680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군산시 소재 3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장기근속과 함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숙련된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청년이 지역기업에서 일하며 3년 뒤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며 “청년이 머무르고 기업이 성장하는 군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폭염 장기화에 선제 대응

한·육우·젓소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공급

정읍시가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한우·육우와 젓소 사육농가 849곳에 폭염 피해 예방용 스트레스 완화제를 무상 공급한다.

이번 지원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스트레스 완화제는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체온 상승과 식욕·면역력 저하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우·육우 사육농가 792곳과 젓소 사육농가 57곳 등 모두 849곳이다.

시는 농가에 완화제를 신속히 공급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초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 사육농가 268곳에도 스

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했다.

지원 농가는 중소규모 양돈농가 91곳과 닭 사육농가 137곳, 오리 사육농가 40곳이다.

시 관계자는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폭염 상황을 계속 살피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축산농가에게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한다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3차례씩 총 9회의 출산준비교실을 열고 정읍시 거주 임산부를 월별 선착순 15명씩 모집한다.

교육에는 분야별 전문 강사가 참여해 모유 수유 방법과 신생아 관리 등 출산 후 실제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태교를 돕는 체험활동도 마련된다. 참여자들은 애착인형과 보온조끼 등 아

기용품을 직접 만들며 출산을 준비하고 다른 임산부들과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출산준비교실이 예비 부모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소비자 권익 보호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내달 28일 성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면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집결검사와 소재장소검사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집결검사는 내달 28일부터 오는 10월 26일 사이 지정 검사일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통시장에서 받을 수 있다.

지정 검사일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인접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이 가능하다.

유료로 진행되는 소재장소검사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이동이 불가하거나, 저울 이동 시 파손 및 정확도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장소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소재장소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피검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검사내용은 검정기준에 정해진 구조적 결함 여부, 법에 정해진 사용 오차 여부, 정기검사 및 검정 여부 확인 등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열린 시장실’ 본격 가동

익산시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속 시원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책임 소통’의 문을 활짝 연다.

익산시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시민과 시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는 ‘소통민원 열린시장실’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소통민원 열린시장실’은 단순한 의견 청취나 의례적인 만남을 넘어선다. 시민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시장이 직접 경험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했다.

특히 이번 열린시장실은 지키지 못할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임형 소통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만남을 희망하는 시민이 익산시 누리집 ‘시장과의 만남’이나 소통민원실을 통해 사전에 사안을 신청하면, 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적 규정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면밀히 사전 분석한다. 실제 면담 자리에는 담당 부서장이 배석해 구체적인 처리 방안과 대안을 투명하게 설명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열린시장실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장의 나침반으로 삼겠다는 민선 9기의 강력한 의지”라며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준비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군산경찰서는 지난 25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함께 진단하고, 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함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을 공감

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청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군산경찰서장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관 간 소통으로 협업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설명회

산업용지 확대·농생명용지 대체부지 재검토 군민 목소리 잇따라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개발청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미래 산업·경제환경 등을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새만금 개발방식을 민간투자 중심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는 2035년까지 부지 조성을 추진하는 방향과 함께 용지체계 개편, 산업·관광·에너지 등 권역별 개발방향, 재생에너지 확대 및 광역 기반시설 구축

계획 등이 설명됐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그동안 산업용지가 전무했던 부안권역에 R4 일원 약 142만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제시돼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안권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산업용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돼 온 관광레저용지가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R1~R4 일원을 산업용지로 확대 전환하거나 산업·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개발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강하게 건넰다.

농생명용지 3공구의 용도 전환에 따른 대체부지 약 98만평을 부안권역에 배치한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이미 부안권역에 대규모 농

생명용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 개발에 따른 대체용지를 다시 부안에 배치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배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업용지 확대와 함께 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계획도 적기에 마련해 줄 것을 건넰다.

새만금개발청 측은 구체적인 변전소 위치와 용량 등은 향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구체화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부안권역 산업용지 확대와 농생명용지 대체부지 재검토 등 군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반딧방여행’ 지역경제 활력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고창군 ‘고창반딧방여행’이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고창관광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반딧방여행은 고창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문체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행중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돼 모집 회차마다 조기마감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9,2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이 가운데 여행을 마치고 정산 절차를 거친 6,400여 명의 관광객에게 총 5억3천여만 원의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을 발급했다.

특히 숙박업 이용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관광객의 숙박이 음식점과 카페, 관광·체험시설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단순 방문·경유형 관광에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창군은 여행기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사업 효과와 지역경제로 지속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환급

금 소비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객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재소비를 촉진하고 고창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환급금 사용 편의와 사용처를 확대해 관광객의 재소비·재방문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관광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초등 예절캠프’ 참가자 모집

28일까지 선착순 신청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2026년 농촌유학생과 함께하는 초등학생 예절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내달 19일 상하농원에서 초등학교 1~6학년 학생과 보호자 40팀, 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고창군 거주 학생 가족 20팀과 고창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고창군 외 거주 학생 가족 20팀이다.

이번 캠프는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고창군 외 지역의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고창을 방문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여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캠프를 통해 고창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다는 취지다.

예절교육을 비롯해 소시지 만들

기, 목공예 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집구분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족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배려와 예절을 배우는 즐거운 경험이 되고,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가족들에게는 고창의 교육환경과 지역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과 농촌유학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여름철 무료경로식당 현장점검

위생관리 강화

김제시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4일 관내 무료경로식당 3개소(김제사회복지관, 김제제일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급식시설의 청결 상태와 식재료 보관·관리, 조리·배식 과정 등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및 식재료 관리 등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급식 이용 모습을 살피고 급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급식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취약계층에 ‘응급꾸러미’ 전달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고창군 상하면(면장 박광월)이 ‘기후대응 문안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폭염 대비 응급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하면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온음료, 냉감패드 등 폭염에 대

비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된 응급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박광월 상하면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통합돌봄과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9월 ‘레드서클 캠페인’ 진행

심뇌혈관 질환 예방

부안군이 9월 첫째 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레드서클 캠페인’을 9월 한 달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레드서클(Red Circle) 캠페인’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3대 주요 수치를 알고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하자는 취지의 전국단위 캠페인이다.

군은 ‘자기혈관 숫자알기’라는 구호 아래 군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 인지율이 비교적 낮은 20~30대를 집중 타겟으로 삼았다. 전 군민에게 일상 속 예방·관리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행사로는 오는 31일 ‘내 혈당·내혈압 바로알기’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 빙고 SNS 이벤트’, 9월 3일 부안군청에서 열리는 ‘레드서클



<사진=부안군>

보관 운영’ 등이 진행된다.

또한 관내 직장인들을 위해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캠프’를 운영하며, 내달 11일에는 건강박람회와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체험부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자기혈관 숫자알기’ 메시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레드서클 캠페인을 통해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붉은노을 동요제 참가자 모집… 내달 15~17일 접수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제4회 부안 붉은노을 동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부안 붉은노을 동요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부안붉은노을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삼금 규모는 총 1,740만원으로, ‘붉은노을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을 비롯해 은상(2팀) 각 100만원, 동상(2팀) 각 70만원 등이 수여된다.

경연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예선인 동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25팀이 축제 둘째 날인 10월 17일에 현장 예선 무대에 오르게 되며, 여기서 선발된 15팀이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축제 주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치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붉은노을축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심원면 지사협 생신축하 떡케이크 전달

고창군 심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유정현, 민간위원장 현병채)는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을 맞아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떡케이크 전달’ 사업을 진행했다.

선운산푸른떡집에서 후원한 떡케이크를 활용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뵙고 생신을 축하드렸다.

현병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르신의 생신을 함께 축하해드리면서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정현 심원면장은 “생신을 계기로 어르신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돌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권여름 작가 초청 ‘색다른 인문학’ 성료

김제시립도서관은 지난 25일 저녁 7시 ‘책으로 만나는 색다른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권여름 작가를 초청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권여름 작가의 소설 ‘작은 빛을 따라서’를 중심으로 꿈을 실현하기까지의 과정과 작가의 창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작가는 자신이 책을 읽고 쓰게 된 계기부터 소설을 집필하게 된 과정, 작품 속 인물과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고난과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작가로서 걸어온 창작의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특히 읽고 쓰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꿈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설 속 다양한 인물을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하며,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날 강연에는 학생과 시민 30여 명이 참여해 늦은 시간까지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강연 후에는 작품을 읽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사인회에서는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작가와의 만남이 시민과 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학습·취업 지원 확대 2(題)

‘성덕면 성덕온마루센터’ 개관

김제시는 26일 성덕면에 조성된 성덕온마루센터에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및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덕온마루센터는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로, 국·도·비·시·비 등 총 40억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491.22㎡ 규모에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공유주방 등을 갖추고 주민들의 문화·교육·복지 및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65 체육쉼터(4,118㎡)를 조성해 풋살장과 산책로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생활체육 및 휴게공간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성덕온마루 센터가 단순한 생활 SOC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촌 지역의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덕온마루센터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배우며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확충과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센터 운영 기관 모집

김제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추진하는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맡을 민간위탁 수탁기관(법인·단체)을 공개 모집한다.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와 야근, 출장, 질병 등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돌봄시설이다.

특히, 젊은 부모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증가하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등 변화하는 양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돌봄서비스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캠보디아 “계절근로자 협력 강화”

캠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대표단, 고창군 방문

고창군은 지난 23~24일(1박2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대표단이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생활현장을 살피고, 양 지역 간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와 지속적인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캠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 등 6명은 이틀간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과 농가형 계절근로자 근

무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고창에서의 근로와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군과 캄보디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를 기반으로 올해로 4년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창군 농업현장에서 일하는 캄

보디아 계절근로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지속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해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창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민선9기 공약 ‘옥석 가리기’

공약실천계획 최종 검토보고회 ‘주 45일제 시범운영’ 제외 결정 일부 사업 조정·자체관리 전환

순창군이 민선 9기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5일 최영일 순창군수 주재로 관련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최종 검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차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약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실천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공약 확정을 앞둔 최종 검토인 만큼 군민 체감도와 정책효과, 실현 가능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과도한 재정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공약



<사진=순창군>

에서 제외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체육·농업 분야 일부 사업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이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은 군의 의지만으로는 이행여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체관리사업으로 전환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마을방문 건의에서 출발한 ‘골목 방

역기동대 운영’은 현장 대응력과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반면 ‘공무원 주 45일

제 시범운영’은 행정인력 여건과 대민 행정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약에서 제외하는 대신 직원 근무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추가 보완하고, 9월부터 주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해 공약 조정사항 등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까지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2026년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

49명 의원 4개 권역서 의정활동 연말 정책발표회서 성과 공유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26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식’을 열고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에는 유희대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성종기 의장, 학부모 등 9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청소년의원 49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위촉장 및 의원배지 수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다짐하는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2026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개원식에 앞서 체계적인 사전 역량 강화 과정을 거쳤다. 지난 4월에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권역별 전담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회학교’를 운영해 지도 역량을 높였으며, 5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의원을 대상으로 ‘정책학교’를 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제안 과정 등 의정활동의 기초를 다졌다.

약 두 달간의 준비를 마친 49명의 의원들은 현재 4개 권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례권역은 ‘완주도시 알라미 청소년 홍보단’ 활동을 통해 완주의 매력과 지역 자원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서권역은 ‘탄소제로 완주, 일상에서 시작’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봉동권역은 ‘인공지능(AI) 미디어로 말하는 완주’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 홍보 및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고산권역



<사진=완주군>

은 ‘우리동네 한바퀴, 이야기 한 스푼’ 활동으로 지역 곳곳을 직접 현장 탐방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하반기에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의정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해 1년 동안 발굴한 정책 성과를 군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공영마을버스 ‘암행 평가단’ 발족

군민 10명 평가단 공식 출범 30개 노선 안전·친절 점검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공영마을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서비스 질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시에스(CS)안전 평가단’을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6일 공단은 회의실에서 이희수 이사장을 비롯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평가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에스(CS)안전평가단 위촉식’을 열었다.

이번에 위촉된 평가단은 공영마을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완주군민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완주군 관내 30개 마을버스 노선에 무작위로 탑승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암행 평가 방식’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단은 ‘CS 안전 운행 이행실태 점검표’를 바탕으로 △급출발·급제동 및 신호 준수 등 안전운행 실태 △차내 위생 및 청결 상태 △



<사진=완주군>

운전원의 고객 응대 태도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느낀 건설적인 개선 의견과 우수 미담 사례를 함께 발굴해 전달할 예정이다.

공단은 평가단이 제출한 현장 점검 결과를 단순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운전원 맞춤형 안전 교육, 친절 캠페인, 노선 및 운행 환경 개선 등 실제 공단 운영 정책에 핵심 지표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희수 이사장은 “평가단원들의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정 어린 제언을 자양분 삼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감동 교통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야간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확충

23개 읍면동 수요조사 완료 9~10월 90여등 설치 추진

남원시는 시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현재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안등 설치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설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10월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를 추진하며, 총90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서울서 외국인 관광객 장문화 체험

장류축제·관광자원 홍보 병행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서울관광재단과 연계해 서울 컬처라운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창 장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에서 순창의 대표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순창의 장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실제 지역 방문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수요를 순창과 같은 지역 소도시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2026 예비 글로벌 순창 장류축제’와 ‘순창 코리아 떡볶이페스티벌’ 비롯해 순창발효테마파크, 전통

고추장민속마을 등 순창의 주요 축제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지역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알렸다.

이어 참가자들은 고추장의 주요 재료와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보며 순창의 장문화와 발효문화를 체험했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순창의 발효산업과 관광자원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해 산업관광 콘텐츠로서의 매력도 높였다.

재단은 이번 서울 컬처라운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장문화 체험’과 순창 관광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순창의 장문화를 미리 경험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실제 순창 방문으로 연결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탬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소상공인, AI로 경영 효율 높인다

남원소상공인연합회 실전 활용 교육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소상공인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소상공인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이 인공지능(AI)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AI는 홍보·마케팅은 물론 고객관리, 상품기획, 매출 및 상권분석,

업무 자동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번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AI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활용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강상남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기후변화 위기 대응 ‘애플망고’ 작목 육성 확대

완주군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망고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소비 시장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입산에 대응해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품질 국내산 로컬 과일을 공급하고자 애플망고를 전략 육성 품목으로 선정했다.

관내 애플망고 재배 규모는 2022년 1농가(0.2ha)로 출발했으나, 지속적인 기술 보급과 농가 육성 노력에 힘입어 2024년 4농가(1.0ha)로 증가했다. 올해는 5농가(1.4ha)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애플망고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여름과 겨울의 극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고도의 시설과 재배 기술이 요구되는 작목이다.

이에 완주군은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 지원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해 애플망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 대과 생산을 돕기 위해 묘목 및 화분 구입을 비롯해 여름철 외부 차광시설, 겨울철 난방비 절감용 보온커튼과 공기순환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규 진입 농가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연 5회 이상의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 변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건강관리 한의약·국학기공 등 ‘호응’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적 건강관리 방법을 활용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10개 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튼튼 골관절·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사의 건강상담과 침 치료를 비롯해 파스·뜸 등 완화 켈 등을 제공해 주민들의 통증 관리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혈순환을 돕고 신체 균형 유지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뇌활성 국학기공체조교실’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국학기공체조교실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30명, 동계건강증진회보건지소에서 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쌍치면 문화센터에서도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학기공체조교실과 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영호남 볼링 동호인 300명 남원서 화합과 소통의 장

남원시 숲 볼링경기장에서 2026 영호남 생활체육 혼성2인조 볼링대회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영호남 참가선수 및 임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경기 방식은 남·여 2인이 한 팀이 되어 기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부부팀과 두 사람의 함께 나이가 130세 이상이 되는 팀들에게는 총점에 20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호응을 얻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영호남 간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참가자들이 남원의 문화와 관광을 함께 즐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9월에도 제5회 광한루배 축구대회, 남원시 협회장배 한국대회, 남원시장이 효사랑 게이트볼대회, 남원시장배 전북 이순동호인 남녀 테니스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새내기 공직자 ‘첫걸음’ 역량 강화

3일간 공직가치·실무교육 진행 소통·갈등관리 조직 적응 지원

남원시가 신규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확립하고 실무 적응을 돕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신규자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신규 임용예정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직 가치관 확립 △실무형 인제 양성 △소통 및 조직력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새내기 공직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무 투입 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원시는 자체 직무 교육과 더불어

△창의적 정책설계 △남원역사 바로알기 △공문서 작성 실무 △공공디자인의 이해 △소통 및 갈등관리 등 공직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다채로운 특강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날은 동기 간 결속력을 다지는 ‘원팀(One Team) 시너지 스파크’ 팀빌딩 활동으로 문을 연다. 이어 창의적 사고를 통한 정책기획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탁월한 직원의 창의적 정책설계’ 특강과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배우며 자긍심을 함양하는 ‘남원역사 바로 알기’ 교육이 진행된다.

둘째 날은 남원시 인사팀과 공무원 노조가 직접 참여해 인사·복무·맞춤형 복지제도 등 필수 공직 제도를 안내한다. 오후에는 실제 현업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공문서·보고서 작성 실습 교육과 영화 속 사례를 통해 성공 전략을 배우는 자기계발 특강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은 행정에 유관한 시각을 더해줄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정책 사례 특강, 조직 내 원활한 소통 및 협업 역량을 키우는 갈등관리 교육, 설문조사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다지고 실무 적응력을 높여 동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새내기 공무원들이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120만원 지원

연1회 지급·증손자녀까지 대상 9월 4~22일 읍면사무소 접수

완주군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2026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민등록

록을 두고 실거주해 온 유족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유족에게는 연 1회 120만 원의 유족수당이 지급된다. 군은 유족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 유족등록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다.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내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은행, 남원 여성청소년 위한 보건위생용품 기탁

남원시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사회공헌 사업 '딸에게 보내는 선물'의 일환으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100박스(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원시에 기탁된 위생용품은 남원시청 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 여성청소년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딸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는 전북은행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췌한결전기, 부안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5일 췌한결전기(대표 김형균)가 부안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안군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균 췌한결전기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장해 온 만큼, 작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과 발맞추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췌한결전기는 평소에도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CCTV 관제요원들, 잇단 활약 '눈길'

실종자 발견·범인 검거 등 신속한 대응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소속 관제요원들이 7~8월 연속 실종자 발견, 차량탈이범 추적 등에 역량을 뽐내며 고창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이승주 관제요원이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 요원은 최근 발생한 차량탈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이동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특정하고 담당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다.

이 같은 공로 덕분에 경찰은 단 시간 내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20일에도 강희망, 임미경, 김태호 관제요원 감사장을 받았다. 강희망 요원은 지체장애인 실종 사건, 임미경·김태호 요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실종된 사건에서 이동 경로를 신속히 포착하고 경찰에 즉각 공유함으로써 실종자를 무사히 발견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제요원들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 체계가 실종자 발견과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내실화해 군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진안군, 거제시 수해 이재민에 구호물품 전달

홍삼제품·즉석식품·쌀 등 700만원 상당 물품 지원

진안군이 갑작스러운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진안군은 거제시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물품에는 진안군 대표 특산품인

홍삼제품(100만원 상당)을 비롯해, 즉석식품인 라면 및 컵밥(500만원 상당), 쌀 300kg(100만원 상당)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진안군청 직원들도 피해지역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이며, 모인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복구 자금으로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국제와이즈맨 정음녹두클럽, 짜장면 대접

국제와이즈맨 전북지구 남지방 정음녹두클럽(회장 이무영)이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등 250여 명에게 직접 만든 짜장면과 수박을 대접했다.

정음녹두클럽은 지난 25일 정음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를 펼쳤다.

중식당 청화루를 운영하는 이무영 회장은 짜장면 식재료를 후원하고 이른 아침부터 직접 음식을 조리했다.

회원 10여 명도 음식 준비와 배식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식사에는 나라약국 이상훈 약사가 후원한 수박도 함께 제공돼 무더위에 지친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시원한 정을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무영 회장과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식사가 이용자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음=김정인 기자



완주 결혼이주여성, 어르신께 반계탕 나눔

완주군가족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돌봄의 주체로 나서는 '다(多)가치 나눔봉사'를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68가구에 반계탕 밀키트 340인분을 전달했다.

완주군은 신선식품 수급이 불안한 화산·운주·비봉·동상·경천면 등 5개 면의 홀몸 어르신 가구 영양 개선을 위해 이번 나눔을 추진했다. 지원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췌화산의 기부가

다해져 당초 계획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반계탕 일부를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이 직접 조리해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 전달했으며, 나머지는 밀키트 형태로 5개 면의 홀몸 어르신 가구에 배부했다.

이번 봉사는 결혼이주여성이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봉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직접 키운 고구마로 나눔 실천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의모)가 26일 이른 아침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사랑의 고구마'를 수확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확 현장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주민 30여 명이 모여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에 수확한 고구마는 지난 4월 고구마순 식재를 시작으로 4개월 동안 잡초 제거 등 정성스럽게 경작해 온 햇고구마로, 봉남면 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황의모 주민자치위원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땀 흘려 수확한 고구마가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보살피는 나눔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추장 나눔 등 매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웃사랑 사업을 지속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진안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 활동 펼쳐

진안군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6일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과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용담면 주민자치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축구·족구·민속경기가 열리는 체련공원, 족구장, 다목적구장과 대회기간 많은 인파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화 봉송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용담면 주민자치위원장(이경철)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선수범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민제전을 위해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작지만 알찬 활동을 계속 이어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여름철 필수 교통안전 수칙



졸음운전 주의



차량화재 주의



빗길운전 주의



타이어 펑크주의

〈一事一言〉



‘새 교육’은 어디 가고 ‘김승환 시즌 2’만 남았는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새로운 교육’을 부르짖으며 출발한 천호성호(號) 전북교육청이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전임 체제와의 차별화를 호언장담했던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뚜껑을 열어본 인사의 실상은 낡은 ‘보은 인사’와 전임 정권 인사의 ‘재탕’으로 점철되어 있다.

전북 교육의 체질을 바꾸겠다던 약속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도민과 교육 현장이 목도하고 있는 현주소는 ‘새 교육’이 아닌, 심각하게 후퇴한 ‘김승환 시즌 2’의 재현일 뿐이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공정과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의 훼손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청 대변인실 임기제 공무원(5·6·7급) 채용 결과를 보면 기가 찬다. 공보 및 홍보 라인의 핵심 보직들이 죄다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나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대변인실을 거친 인물들로 채워졌다.

공개 채용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합격자 명단조차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번 인사는 ‘측근 챙기기용 짬짜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도덕적 기준의 파탄과 동문 정기기다. 본청 4급(서기관급) 주요 보직을 둘러싼 내정설은 교육계 안

팍을 커다란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협력과장 자리에 거론되는 인물은 과거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인수위원 직에서조차 자진 사퇴했던 천 교육감의 고교 동문이다.

음주운전은 교원 사회에서 엄단하는 대표적 비위 행위다. 아이들의 안전과 도덕성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의 핵심 간부 자리에 음주운전 전력자를, 그것도 ‘고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내정하려 한다는 정황은 공적 조직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정 능력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4급 대변인 직위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역시 선거 당시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논란이 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천사랑방’ 출신이다. 사법적·도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를 교육청의 ‘입’이자 얼굴인 대변인으로 앉히려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오만의 다름 아니다.

셋째로, ‘김승환 체제와의 차별화’ 실패에 따른 행정 동력의 상실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임 교육감 시절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바람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무 라인을 전임 체제의 인력과 캠프 논공행상 인사들로 도배하면서, 정책적 차별화는커녕 전임 체제의 구태

를 그대로 습습상수(習習相相)하는 모양새가 됐다.

인사가 만사(萬事)라 했다. 첫 단추부터 보은과 측근으로 꿰어진 조직에서 혁신적인 교육 정책이나 공정한 교육 행정이 나올 리 만무하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교육 행정의 성패는 도민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깊은 신뢰를 주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취임 단 두 달 만에 드러난 천호성 교육감의 인사 행태는 청렴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천 교육감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논란이 불거진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임이자, 전북 교육을 스스로 퇴보시키는 길이다.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측근 인사를 철회하고,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즉각 회복해야 한다. 술한 도덕성 논란과 ‘보은 인사’의 그늘을 거두어내지 못한다면, ‘새 교육’이라는 구호는 도민을 기만한 헛된 수식어로 남게 될 것이다.

독자투고

폭염 속 차 안 시한폭탄 ‘보조배터리’ 방심은 금물!



썬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밀폐된 차량 내부에 방치된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차박용 대용량 파워뱅크 폭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내부는 불과 1~2시간 만에 최고 70~90℃까지 치솟는다. 특히 전면 유리 아래 위치한 대시보드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 온도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하는 ‘화재 사각지대’로 꼽힌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7~8월) 도내 화재의 17%가 차량 화재이며, 소방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나 인화성 물질 방치를 주요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화재 사고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5년 8월 10일 정읍 지역에서는 아파트 야외에 주차된

화물차 대시보드 위에 둔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차량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9일에는 부산 압남공원 공영주차장의 캠핑 카라반 내부에서 대용량 파워뱅크가 폭발하며 차량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이러한 화재의 주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다. 배터리가 고온에 노출되면 가스가 차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을 거쳐 폭발하게 된다. 한번 발화하면 순식간에 1,000도가 넘는 고열과 유독가스를 내뿜어 일반 소화기로는 초기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일상 속 철저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첫째, 차량 내 방치 금지. 외출이나 캠핑 시 보조배터리, 휴대폰, 파워뱅크 등 배터리 내장 기기는 반드시 가지고 내려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시보드를 피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트렁크나 좌석 아래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두번째, 서늘한 곳 보관. 야외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타프나 텐트 내부 중에서도 직사광선이 완전히 차단되고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세번째, 고온 충전 및 과충전 금지. 폭염 속 야외나 밀폐된 차 안, 한낮 베란다 등 뜨거운 곳에서의 충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 충전이 끝나면 즉시 코드를 뽑고, 취침 중이나 자리를 비운 사이 장시간 충전하지 않아야 한다.

네번째, 이상 징후 시 사용 중단. 배터리가 뚝뚝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기기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질 때, 시름한 냄새가 날 때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안전한 야외 공간으로 격리해야 한다.

“설마 내 차에서 터지겠어?”라는 사소한 방심이 즐거운 일상을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꿀 수 있다. 나부터 차량 대시보드 위 배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정읍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장 소방경 이남영

사설

5·18 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편향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인 5·18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역사만이 아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 수많은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국가폭력의 실체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주장을 반복하며 5·18의 의미를 훼손한다면 이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나 ‘학술적 검증’으로만 포장하기 어렵다.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다면 검증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검증과 왜곡은 다르다.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라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또 다른 문

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라면 그 발언과 행동에는 일반인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국민의힘의 대응 역시 아쉽다. 소속 의원이 5·18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 표결 불참으로 비켜갈 것이 아니라 당의 역사 인식부터 명확히 밝히려야 한다. 그동안 보수정당 역시 5·18 정신 계승과 국민통합을 약속해 왔다. 그렇다면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제재를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제명 문제는 충분한 사실 확인과 당사자의 소명, 국회 윤리특위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결정에도 국민적 신뢰가 따른다.

5·18은 성역이어서 비판할 수 없는 역사가 아니다. 수많은 희생과 오랜 진상규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자리 잡았기에 근거 없는 왜곡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야 모두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역사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늘의시

있는 힘을 다해 / 이상국

해가 지는데
왜가리 한마리
물속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저녁 자시러 나온 것 같은데
그 우아한 목을 길게 빼고
아주 오래 숨을 죽였다가
가끔
있는 힘을 다해
물속에 머리 처박는 걸 보면
사는 게 다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다

시인 약력 : 1946년 강원도 양양 출생. 1976년 잡지 심상에 시 ‘겨울 추상화’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유심지 주간, 백담사만해마을 운영위원장, 한국작가회의 강원지회장, 설악신문 대표이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장, 한국작가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제19회 현대불교문학상, 제24회 정치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달은 아직 그 달이다’ 뽕을 적시며’ 등의 작품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정읍소 963 444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열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김제시보건소,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앞장

2026년 분기별 정기 검진 집중 전개

질환별 맞춤검사·전문상담 통해 합병증 조기 예방

“고혈압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도 합병증이 생기면 어쩌나 늘 불안했는데, 보건소에서 분기마다 무료로 필요한 검사를 해주니 정말 든든합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 선생님이 딱 맞는 맞춤형 처방과 관리법을 설명해 주시니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김제시보건소의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에 참여 중인 시민의 사례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향하는 '체계적인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중증 합병증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잘 보여준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보건소의 전문 상담을 통해 생활 습관 개선과 치료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은 만성질환 관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김제시보건소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계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3분기 검진을 집중적으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망막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합병증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보건소는 단순히 약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해 질환의 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 분기별 연 4회 정기 무료 검진으로 지속적인 건강 데이터 관리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회성 검사가 아닌 지속적인 추적 관리에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고지혈증·당뇨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연 4회 정기 검진을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해 질환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축적된 검사 데이터는 건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약물 복용 효과와 생활 습관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처방과 건강상담을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 참여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도록 유도해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 질환별 맞춤형 검사로 합병증 조기 발견

김제시보건소는 질환별 특성에 맞춘 정밀 검진을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혈중 지질 수치를 확인하는 고지혈증 검사 3종을 실시해 동맥경화와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최근 3개월간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뇨의 치명적인 중증 합병증인 신장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신장기능검사 2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은 합병증 발생 이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누적 참여자 730명 돌파, 지역사회 건강 안 전망의 든든한 버팀목 자리매김

현재까지 김제시보건소의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에 참여한 시민은 총 730명에 이른다.

정기검진을 통해 축적된 건강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 관리 뿐 아니라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합병증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정기 검진과 전문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꾸준한 참여를 통해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중증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